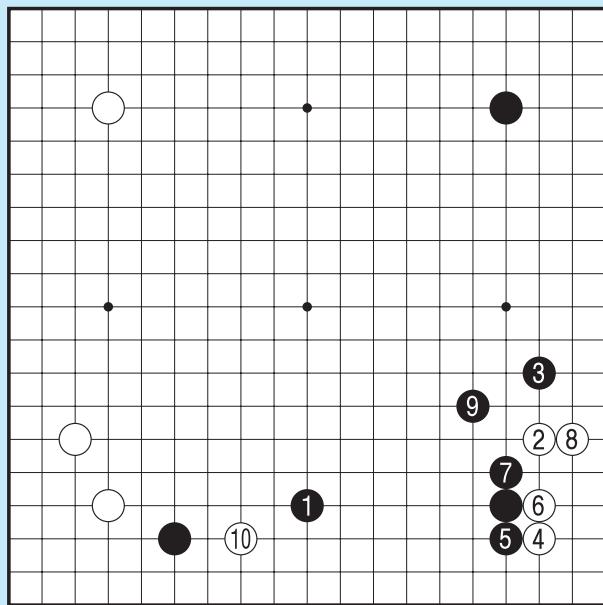


김만수의 어려운 것을 정해주는 남자



장면도

새해 첫 날, 분당 바둑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정남 김만수 사범님 계십니까?”

“네. 저입니다만……”

“억수로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에 사는 얘기가 있는데예~ 내일 찾아 뵐도 괜찮겠습니까? 지가 요즘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서 꼭 김사범님에게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다음날, 진짜 초로의 얘기가 한 분이 어정남

을 찾아왔습니다. 마산에서 오신 김 선생님은 앉자마자 바둑판에 장면도를 주르륵 늘어놓으셨어요.

“김 사범,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옛 친구하고 술내기 바둑 두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내가 양화점을 두면 꼭 백2로 걸쳐오지 말입니다. 나는 세력을 좋아해서 흑3을 두는데, 정석이 진행된 후에 꼭 백10으로 들어와요. 이 수 때문에 꼭 여기서 망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술을 계속 샀더니, 너무 부아가 치미는 게 아닌고. 도대체 어떻게 둬야 하는 거요?”

아이고~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바로 백10, 애가 제일 문제야 문제. 어정남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 수. 이번 달에는 새 해를 맞이해 수준을 살짝 높여보겠습니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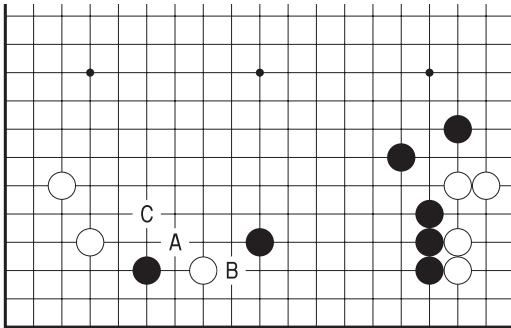
자~ 먼저 절대 두면 안 되는 수부터 정해드리겠습니다. 흑A~C, 이 세 가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둑 못 두는 남자가 되기 싫다면 말이죠.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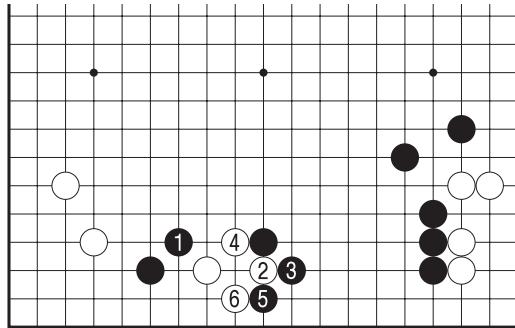
흑1의 마늘모 공격은 일견 강력해 보입니다. 백을 잡으려 가는 수나 다름없지만 백은 2·4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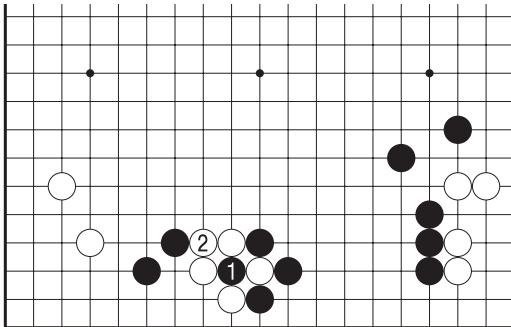
바둑을 두다보면 매번 머리가 지끈거리는 어려운
장면이나 애매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해도
알쏭달쏭한 어려운 장면들.
어정남 김만수가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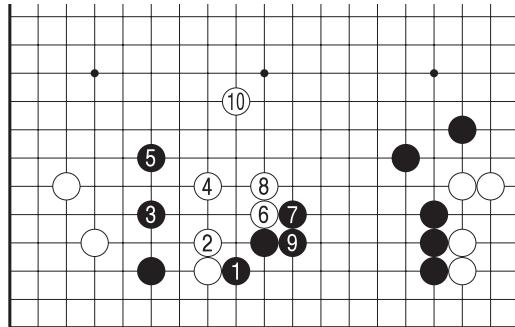
1도



2도



3도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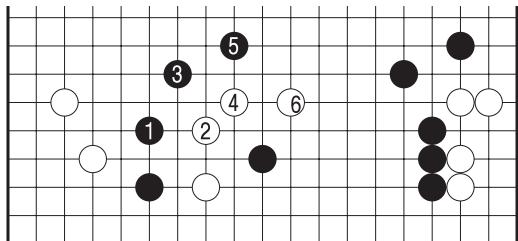
맥점을 이용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흑5에 백6이 패를 가장해 흐름을 타는 좋은 행마.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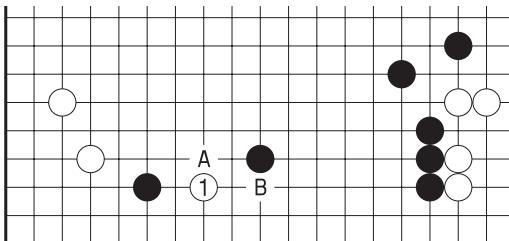
흑1로 때리면 패가 발생한 것 같지만, 백2가 흑을 맥 빠지게 만드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타 흑진을 탈출하면 오히려 좌측 흑 두점이 비실비실한 미생이 되고 말죠.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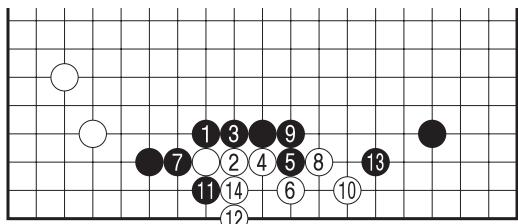
흑1로 붙인 다음 3으로 뛰는 수도 많이 목격되곤 합니다. 집도 쟁기면서 백돌을 공격하겠다는 당찬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바둑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백6이 멋진 상용의 맥. 흑 모양을 견제한 다음, 백10으로 중앙에 진출하면 집도, 공격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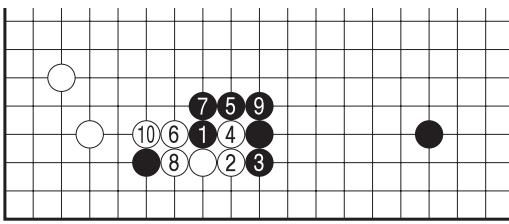
5도



6도



7도



8도

총 세 가지. 이 세 가지 변화의 특색을 외워 주변 배석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수법 익히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도

5도

김 선생님의 선택은 흑1로 뛰고 3으로 써워 공격 개시. 역시 호쾌한 공격을 좋아하는 김 선생님 다운 한 수입니다. 그러나 백4·6으로 뛰어나가자 이게 공격을 하는 건지 내 집을 깨어 먹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아래선 술 얻어먹 긴 글렸죠.

6도

자~ 흑이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응수 잘 보셨나요. 우리 김 사장님, 만날 내기에서 진다 했더니 항상 세 가지 수법을 번갈아 가며 두었다고 하시는군요. 왜 허구한 날 술값을 상납했는지 아시겠죠?

백1의 침입은 절대 잡을 수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귀한 손님 대하듯, 잘 모신다는 느낌으로 조심스레 대응해야 합니다. 흑의 응수법은

7도

흑의 세 가지 응수법을 중앙형, 세력형, 실리형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앙형은 흑1로 붙여 두텁게 틀어야하는 수법입니다. 흑13까지 실리로는 손해지만 훗날 중앙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전투지향 전략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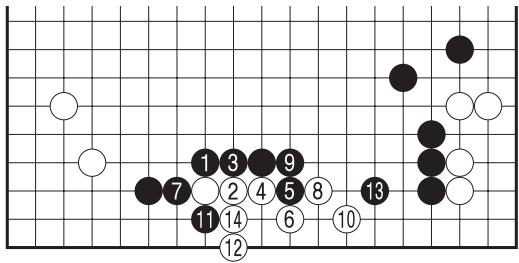
8도

두 번째는 ‘세력형’ 이에요. 흑3으로 막아 한 점을 사석으로 이용해 변과 중앙일대 큰 세력을 얻겠다는 의도지요.

9도

마지막 ‘실리형’은 일견 하수가 두는 속수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보셨죠? 바로 흑1의 말뚝. 하면 한쪽에 확실한 집을 지어놓고 행마하겠다는 선 실리 후 타개 전법입니다.

그럼 다시 장면도를 봐주세요. 장면도 백10의 장면에서 적합한 수법은 세 가지 방법 중 무엇



10도

일까요?

10도

혹시 9도 실리형을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애석하게도 오답을 선택하셨네요. 정답은 8도 ‘중앙형’ 이랍니다.

‘백14까지 살면 흑 모양만 깨진 것 아닌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 더 진행해보겠습니다.

1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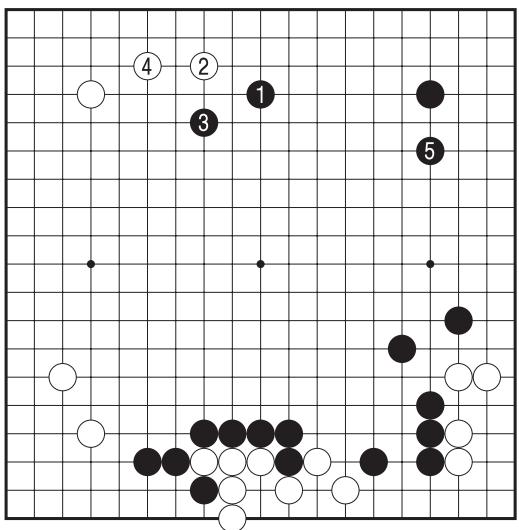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요충지 흑1을 차지하고 보면 상변 우변 중앙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하나로 어우러져 막강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깨기 위해선 백도 목숨을 건 특공대를 투입해야 하는데요. 튼튼하게 늘어선 하변 흑돌들이 전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1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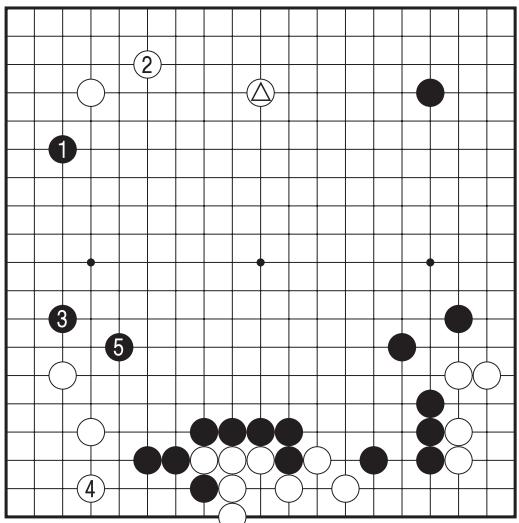
만약 백 \triangle 가 미리 와 있다면, 흑은 방향을 바꿔 1·3으로 좌변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흑5로 씌워가면 역시나 멧진 흑 세를 완성할 수 있죠. 게다가 보너스로 하변 백 모양엔 무시무시한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1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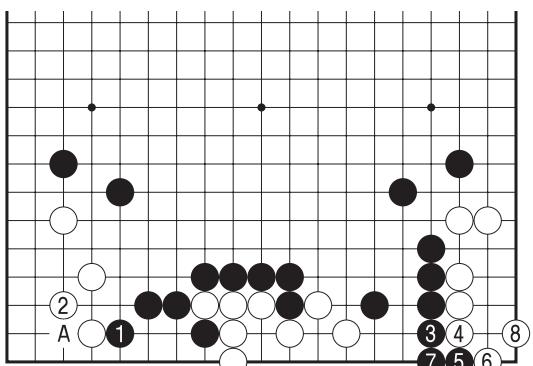
먼저 흑1로 붙이면 백은 A의 붙이는 맛 때문에 백2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흑3 이하 선수 활용을 끝내기 하듯 자연스레 진행합니다. 자~ 그럼 준비 끝. 이제 숨겨진 비기를 발동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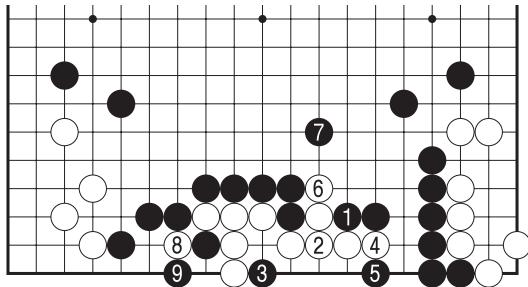
1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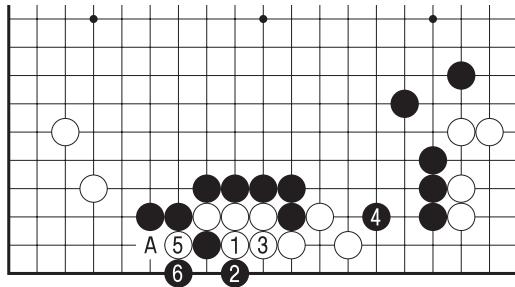
1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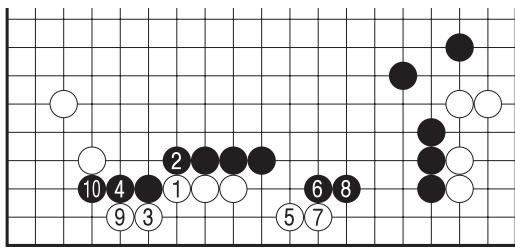
1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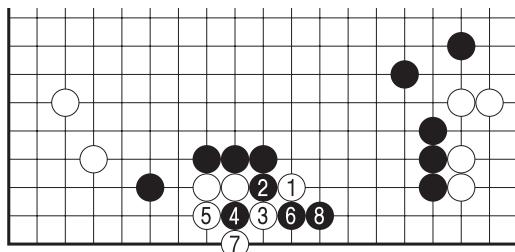
1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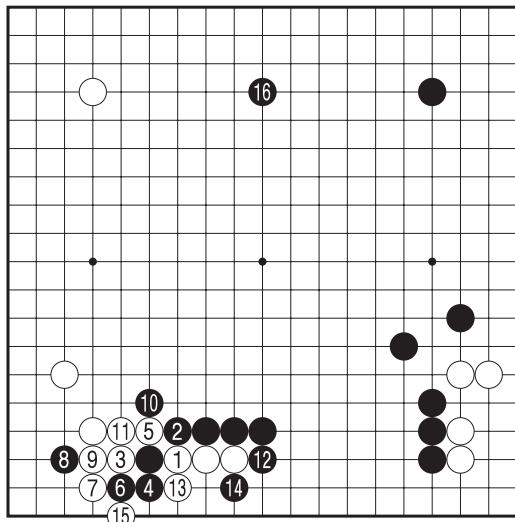
1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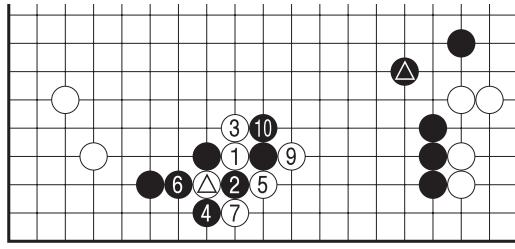
16도



17도



18도



19도

11도로 돌아가 백1에 막은 다음, 백5로 끊으면 완생 아니냐는 김 선생님 질문.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죠? 흑이 A로 막아주지 않고 6으로 벼티면 꽂놀이패가 발생, 어차피 백대마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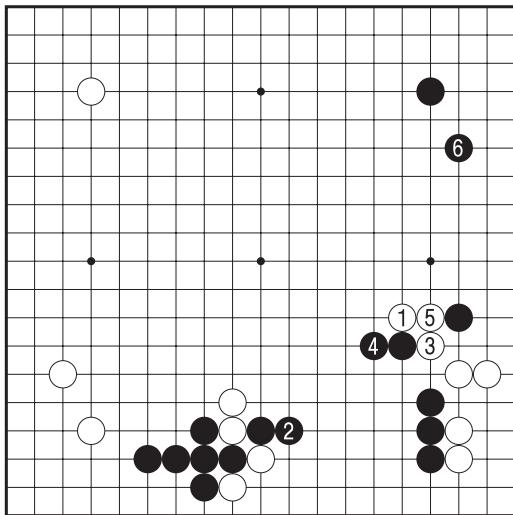
14도

흑1이 백대마의 숨통을 조이는 독수(毒手). 백4에는 흑5, 백8에는 흑9로 백대마는 미생(未生)입니다. 주위가 조금만 두터워지면 흑은 언제나 독수를 결행할 수 있기에 백으로선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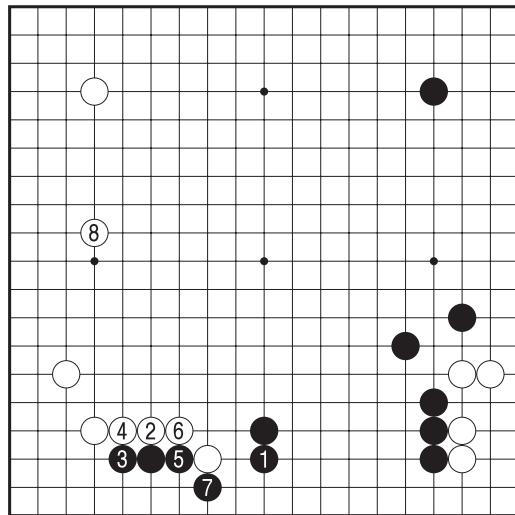
15도

16도

워낙 많이 나오는 형태여서 그런지, 옆에서 같이 보시던 분들께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강3급의 기량을 가지신 회원 분께서 백1·3으로 밀면 어떠냐고 흡족한 표정으로 물으시네요. 물론 백돌이 무난하게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2선을 빙빙 기며 좌하귀에 민폐를 끼쳐선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바둑에서도 나 살자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답니다.



20도



21도

17도

“그럼 백1로 뛰면 안 되나요?” 9살 민권이도 질문을 던집니다. 유망주답게 기재가 돋보이는 수지만 지금은 흑2·4로 끊겨서 백이 괴롭습니다.

18도

백1로 치받은 이후 3으로 붙이면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말 연결이 되긴 하지만 흑에게도 4로 빠지는 사석작전이 있어, 8·10으로 활용한 뒤 12로 막고 선수까지 뽑아 16으로 달리면 손맛이 절로 날 듯하죠?

1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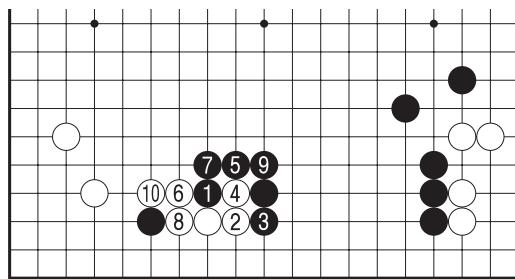
민약 축이 유리하다면 백1로 끌을 수 있지만 지금은 흑△가 축머리가 돼 성립되지 않습니다.

20도

실제로 과거 프로의 실전보에서 축을 이용해 백1·3으로 둔 바둑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번 흑 모양이 모두 집으로 굳어지고, 흑6으로 우변을 견제 당해 실패란 평을 받았습니다.

21도

다른 수법들은 어떨까요? 흑1로 집을 철통같



22도

이 방어하는 실리형은 백2를 당해 좋지 않습니다. 백6까지 꽉꽉 눌리고 8의 절호점을 허용해 선 백의 ‘중앙형’이 돋보이는군요.

22도

흑3으로 막는 세력형은 시도해볼 만하지만 중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튼튼하긴 한데 좁아도 너~무 좁아요. 바꿔줘!

이번 달 강의, 많이 어려우셨죠? 무엇보다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강의와의 차이점이죠. 그러나 이 어정남, 주변 상황이라는 것까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세력형과 실리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둑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